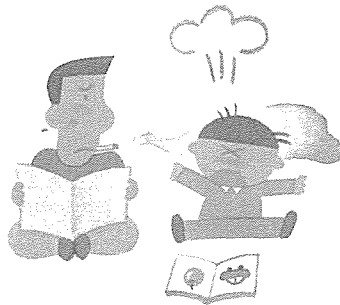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숙제

박 송 희

서울 상신초등학교 3·6



'96 전국 어린이대상 금연 글짓기 수상 작품

지난 설날, 고향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오랜 만에 온가족이 모여서인지 할애기가 많았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즐겨 피우시던 담배를 끊으셨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밥맛도 좋아졌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주머니가 깨끗해졌고 방안 공기도 맑아지고, 담배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괴로워하시던 할머니가 제일 기뻐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큰 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며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에 올 때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하며 담배 끊는 숙제를 내어 주시는 것이었다.

우리 몸에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주 검은 피부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희고 고와지셨다.

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할아버지가 내어 주신 숙제를 하루빨리 실천해 보시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도 지난 여름, 3개월동안 담배를 끊으셨다가 담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

고 다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아주 나쁜 마약같은 것인가 보다. 자꾸만 사랑을 유혹하니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버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그렇게 즐기시는 담배를 집에서는 배란대로 쫓겨나야 하고 회사에서는 흡연 지정장소로 찾아가서 피우셔야 되니 아버지가 무척 안되어 보이신다.

난 말했다.

“담배 피우시기가 힘들신데 왜 못 끊으세요? 건강도 나빠지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희고 고운 얼굴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

요.”라고 말씀드리며 어머니와 난 며칠 전 아버지께 사탕과 은단을 선물했다. 담배생각날 때마다 드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디어 아버지가 할 아버지께서 내어 주신 숙제를 실천하겠다고 하시는데 야닌가. 난 너무 기뻐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담배를 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담배꽂초 때문에 벌금내는 일도 없고, 온세상이 깨끗해져서 푸른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텐데.

지금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숙제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다가오는 추석날에 온가족이 모이면 할아버지의 숙제를 잘하신 분이 우리 가족 모두가 길 바라며 ‘우리 아버지 화이팅!’, ‘담배여 안녕!’이라고 크게 외쳐 본다. **72**

아빠의 결심

김 태 현

인천 작동초등학교 3-2

“딩 동딩동”
“아빠, 아빠야?”
“찰각”

환한 얼굴로 아빠가
들어 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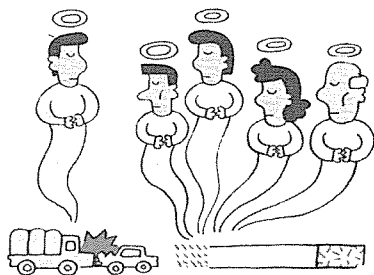
“우리 큰 돼지, 작은
돼지 오늘 잘 놀았어?”
하며 나를 꼭 안아 주
신다.

그럴 때마다 풍기는
담배 냄새는 좋기도 하
고 싫어지기도 한다.
그런 담배 냄새는 아빠
의 냄새이기도 하고 아
빠의 상징이다.

우리 아빠 담배를 많
이 피우지는 않으시지
만 하루에 한 갑 정도
는 피우신다.

엄마께서 항상 담배
를 즐기시라고 재촉하
시지만 쉽게 끊지는 못
하신다. 난 아빠의 담
배 피우시는 것이 멋있
어 보이기도 하고, 남
자는 술, 담배를 해야
멋있는 남자인 걸로 알
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
에서 ‘건강, 알면 이긴
다’란 프로그램을 온 가족
이 보게 되었다. 담배
를 많이 피우면 40~70



세 모든 남녀 중에 폐
암에 걸릴 확률이 크며
비흡연자도 흡연자의
연기로 인해 폐암에 걸
릴 가능성도 높다고 했
으며, 담배를 피우는
산모는 지진아, 기형아
를 낳기 쉽고 특히 건
강한 폐와 흡연자의 폐
를 비교할 땐 가슴이
덜컹했다.

우리 가족에겐 큰 충
격이었다. 그날 아빠는
담배를 끊으시겠다는
대 발표를 하셨고 우리
두 아들과 약속도 하셨
다.

“태현아, 아빠 오늘
부터 절대 담배를 입에
물지 않을거야. 너희들
과 약속하지.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아빠
태현이 아들, 아들이
지.”

“뭐 아들! 하하 호
호.”

온 가족은 웃음 바다
가 되었지만 엄만 몹시
걱정하는 눈치였다.

“아니, 약속을 못 지
키면 어쩌려고 아들에
게 그런 약속을 해요.”

그 날 이후 아빠 정
말 담배를 입에 물지
않았지만 몹시 불안해
하는 눈치였다. 아이들
같이 군것질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짜증도 많
이 내시는 것 같았다.

엄만, “그러시지 말
고 조금 피우세요.”하
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
는, “암 자신있지, 자신
있고 말고. 우리 두 아
들과 약속했는데...”하
신다.

‘정말 저렇게 힘이
드실까?’ 생각하며 용
돈으로 살짝 담배를 사
드리고도 싶었다.

하지만 아빠의 건강,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

해 혼자 힘들게 싸우시
는 아빠를 보니 난 커
서 담배를 절대 피우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빠
의 생신이 다가왔다.
난 남은 용돈 3,000원
으로 무슨 선물을 살까
망설이며 곰곰히 생각
하다 그만 고사리 손으
로 아빠가 즐겨 하시
는 담배 두 갑 사고 말
았다. 그리고 카드에,

“사랑하는 아빠, 생
신 축하 드려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
아 담배 두 갑 샀어요.
오늘만 피우시고, 내일
부터는 피우시지 마세
요. 아빠 사랑해요.”

내 카드를 읽고 웃으
시며, “그래 우리 아들
이 최고다. 역시 남자
끼리는 통하는게 있
어.”

하며 나를 꼭 안아
주시며 귓속말로 속삭
였다. “아들아, 아빠 꼭
담배를 끊으마...”

그 날 이후 그 담배
는 우리 아빠의 마지막
담배였다. 72